

 <b>더불어민주당</b>	<b>보도자료</b>	<b>충남도당</b>
2017년 4월 17일(월)	대변인 : 김 연(010-3355-4074) 담 당 : 우승윤 정책실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281-2, 승지빌딩 5층 / 041-569-1500, 010-3406-5528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제19대 대통령선거유세단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 제19대 대통령선거유세단이 22일간의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충남도당 유세단은 4월17일 오전 8시30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박완주 상임선대위원장, 양승조 공동선대위원장, 이규희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소속 광역·기초의원 등 천안지역 핵심당원과 선거운동원이 총결집한 가운데 출정식을 가졌다.

이밖에도 아산시(배방역 4거리), 서산시(공용버스터미널 앞), 홍성군(홍성여중 4거리), 금산군(금산읍사무소 앞) 등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도 일제히 출정식이 진행됐다.

박완주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1,600만 촛불의 뜻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라며 “5월9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천안시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승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5년,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서민경제는 파탄이 났고, 우리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버렸다. 천안시민들께서 이번 선거를 통해 보수정권의 실정을 심판해 달라”며 “청와대에서 국정경험을 쌓은 후보, 대한민국 제1당의 후보인 문재인 후보만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희 공동선대위원장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나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좋은 나라라는 것은 공정한 나라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힘없어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며 “공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문재인 후보가 바로 그 적임자”라고 전했다.